

에너텍, 미얀마와 바이오디젤 합작

에너텍과 미얀마 Agritech이 바이오디젤(Bio Diesel)을 공동으로 생산하기 위해 파테인-마우틴선 자동차 전용도로를 따라 810ha에 이르는 농경지에 자트로파 등 바이오디젤 원료 식물을 재배하기로 합의했다.

양사가 공동으로 생산한 바이오디젤은 국내용으로 우선 공급하고 남는 양은 수출할 계획이다.

또 미얀마 농업부는 일본개발연구소(JDI), 일본 바이오에너지 개발협력(JBEDC)과 공동으로 고품질의 바이오디젤을 생산하기 위해 <Myanmar Bio Enery>를 설립한다.

미얀마 농업부에 따르면, 만달레이, 사가잉, 마궤 등 3개 지방에 64만7000ha의 자트로파 농장이 조성돼 있으며 2008년 자트로파 등 바이오디젤 식물 재배지를 323만ha로 늘릴 예정이다.

<화학저널 2008/11/07>